DBpia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

A Study on Hwa-Jaeng nationalism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era

저자 (Authors)
안승대
An, Seung-dae

출처 (Source)
민족문화논총 72, 2019.8, 265-300(36 page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72, 2019.8, 265-300(36 pages)

발행처 (Publisher)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4963

APA Style
안승대 (2019).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 민족문화논총, 72, 265-30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1 13:2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http://dx.doi.org/10.15186/ikc.2019.8.31.265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

안 승 대*

<목 차>

Ⅰ. 머리말
Ⅱ. 민족주의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Ⅲ. 분단체제 하의 민족주의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Ⅳ. 통일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는 강대국의 시각, 서구 중심적 시각에 따른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한반도 민족주의는 서구의 보편성보다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통일 민족주의는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민족주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는 가변성을 지닌 2차 이데올로기로서 대외적 침략주의나 대내적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성 패러다임을 화쟁사상의 차이와 연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이를 민족주의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arche222@hanmail.net)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셋째, 남한과 북한은 민족≠국민인 국민국가이자 결손국가로서 민족주의의 국가주의화 즉 분단국가주의를 추구해왔다. 화쟁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분단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통일 민족주의이다. 통일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차단된 민족적 리비도를 부활시키고 분단인을 통일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민족주의화의 과정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화쟁사상의 실천원리는 구체적인 통일 민족주의의 실천원리로 적용 가능하다. 우선 불일불이의 원리는 기존의 민족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으로 개합입파의 원리는 극한 이념대립을 무애의 사유방식, 거침없는 사유방식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통일질서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이다.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는 통일 민족 구성원인 화쟁인의 실천원리이다.

주제어 : 민족주의, 통일 민족주의, 분단 민족주의, 화쟁 민족주의, 불일불이

Ⅰ. 머리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에 따라 북미회담 역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은 북핵 동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관계개선 등을 주제로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 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평화교류 및 통일시대의 가시화라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통일시대로 가는 전환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 이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갈등이라는 난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통일의 단초는 민족애와 민족주의에서 발현되며, 통일한국은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1]. 민족주의는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이념이기에 민족통일문제를 민족주의를 고려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2].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주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필요하다[3]. 이념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민족주의 담론은 남북의 거의 유일한 접점[4]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다. 민족통일연구원[5]의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소개에 뒤이어 통일과 한국 민족주의의 관계를 다루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다루는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들은 분단 국가주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6], 민족주의와 통일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는 연구[7], 민족적 연대와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연구[8], 탈민족주의

1) 정지웅(2004),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8권 1호, 북한연구학회, p.221.
2) 이범웅(2012),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고찰」, 『윤리연구』, 84호, 한국윤리학회, p.325.
3) 윤인진(2007),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8집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p.7; 배성인(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세계화와 주체화의 변증법」, 『통일문제연구』, 37호,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p.232.
4) 정영철(2007), 「남북한 대립 상징의 구조와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 북한연구학회, p.18.
5) 민족통일연구원(1993),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6) 강만길(2003),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p.16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연구에 대한 비판[9], 탈민족주의의 탈분단 경향성에 대한 비판[10] 등이며, 이 연구들은 통일민족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또한 지니고 있다.

통일민족주의는 남북한의 문화적 역사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할 때,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통일이념으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상인 원효의 화쟁사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영복[11]은 서양의 존재론보다는 동양의 관계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양의 존재론이 동일성 논리에 기반하여 획일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지배와 흡수합병의 논리라면, 동양사상의 화(和)의 논리, 관계성의 논리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존과 평화의 논리로 통일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송두율[12]은 탈현대/탈민족에 맞서 민족의 개념을 고수하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다름의 공존을 주장하는 원효의 화쟁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경계인, 경계의 윤리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13] 그는 원효의 역동역이, 비동비이의 세계와 같이, 통합하고 배제하는 제 3의 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14]

그러나 신영복의 연구는 통일논리로서 동양사상, 전통사상의 화의

---

7) 김영명(2003),「한국 민족주의와 통일문제」,『민족사상연구』, 11호, 경기대학교 민족사상연구소, pp.221~236.
8) 박영균(2015),「통일의 변증법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통일인문학』, 6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9) 이병수(2009),「남북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체제와 민족을 중심으로」,『통일인문학』, 4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0) 홍석률(2007),「민족주의 논쟁과 세계체제,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대응」,『역사비평』, 2007년 8월호(172호).
11) 신영복(2004),『나의 동양고전 독법 - 강의』, 돌베개, p.46.
12) 송두율(2002),『미완의 귀향과 그 후』, 후마니타스.
13) 송두율(2002),『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14) 송두율(2000),『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pp.189~19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논리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송두율 역시 서양과 동양을 잇는 통일논리로서 경계인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원효의 화쟁논리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통일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한 통일 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원효의 화쟁사상을 적용하여 통일 민족주의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일이념은 남북한 민족구성원의 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 민족주의는 남북한 구성원의 문화적 역사적 공통성에 기초할 때 보다 더 큰 통합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족의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는 통일이념, 통일 민족주의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민족주의가 될 수 있다. 또한 통일 민족주의에 민족사상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통사상은 원융회통, 묘합의 원리가 그 특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사상은 단군신화의 천지인 합일사상, 동학의 인내천사상, 한국 불교의 교선일치 노력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원융회통과 묘합의 원리가 그 특징이며 이는 분단으로 인한 극한적 대립,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활용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이러한 민족사상의 정수이자 핵심사상, 대표사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은 민족사상, 민족의 전통사상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화쟁사상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전통사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사상의 특징은 묘합의 원리에 있으며, 이는 단군, 화랑도, 원효를 거쳐 인내천 사상으로 이어져 왔다[15]. 화쟁사상은 이러한 전통사상의 맥을 잇

15) 이을호(1986), 「단군신화의 철학적 분석」,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p.1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는 조화와 화해와 평화의 철학이자 사상이다. 화쟁사상은 다툼(諍)을 화(和)해시키는 화해와 평화의 철학이자 사상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사상으로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필요[16]한 것이다. 화쟁사상은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으로서 대안적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화쟁사상은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인류역사를 화합과 평화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초국가적 초이념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17]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원효의 화해와 화합의 사상을 통일 민족주의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답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민족주의가 왜 통일사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다. 최근의 국내외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주의의 문제점들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분석하여, 민족주의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해보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분단 체제하의 남북한 민족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다. 통일 민족주의는 분단 체제 하에서 남북한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기본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단 체제 하의 남북한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과제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방향과 기본과제의 요청에 화

16) 이근용(2015),「원효 화쟁사상의 현실적 적용과 의의」,『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8호, 한국소통학회, p.155.
17) 김현남(1991),「원효화쟁사상의 현대적 의의」,『한국종교』, 16호, pp.328~32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쟁사상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방향, 기본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일 민족주의의 실천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Ⅱ. 민족주의의 문제점과 통일민족주의의 기본방향

민족주의는 민족을 중심에 둔 주의(이념)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 독립, 통일을 지향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이념이다. 민족주의는 삶의 기본단위로서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이념이다[18]. 민족주의는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이타적 도덕적 열정[19]이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20]이기도 하다. Gellner는 민족주의를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균열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집단운동의 이념적 지주로 보았다.[21]

이처럼 민족주의는 민족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며, 민족공동체를 향한 이타적 도덕적 열정이자 운동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구분법은 문화민족과 국가민족, 원초론과 근대론이라고 할 수 있다[22]. 국가민족(주관주의적 민족)은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구성원들의 법적 평등성, 동질성이 기본특징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민족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문화

18) 이범웅, 앞의 글, 325쪽.
19) 김동춘, 「사회로서의 민족, 사회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공간과 사회』, 28호, 한국공간환경학회, p.70.
20)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9.
21) Gellner, E.(1964), Thought and Change, Weidenfeld and Nicloson; 백낙청 편(1981), 「근대화와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pp.148～165.
22)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pp.22～3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민족은 독일과 동부유럽처럼 후발 민족국가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신비적 관념적 민족정신에 호소하며, 언어, 혈통, 문화, 역사 등 문화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3단계 도식론[23]은 국가민족, 문화민족에 제3세계의 민족주의인 저항민족을 포함시킨다. 저항민족은 이민족의 지배에 저항하고 민족해방을 목표로 하는 민족개념이다.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는 각각 근대론modernism(도구론 instrumentalism)과 원초론(primordialism)[24]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초론은 민족의 영속적 측면, 문화적(언어, 역사, 혈연, 영토) 원초적(primordial) 특징을 민족의 특징으로 본다면, 도구론(근대론)은 근대화의 부산물, 혹은 근대국가 형성과 산업화에서 민족주의의 도구적/근대적(instrumental/modern) 특징에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류담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대적/탈근대적 민족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에릭 홉스봄, 겔너, 베네딕트 앤더슨, 앤소니 스미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25] 이들은 민족의 영속성, 원초적 특징, 문화적 공통성, 역사성을 강조하는 원초론/객관주의적 민족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Gellner는 민족주의가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해 왔다"고 주장한다. Hobsbawm은 민족주의가 민족에 앞서며, 민족이 국가와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Benedict Anderson 역시 민족주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민족주의를 근대국가에 의한 정치적 발명품, 산업화와 자본주의화라는 근대의 산물이

23) 박호성(1997),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당대, pp.35-48.

24) 임지현, 앞의 책, 22-27쪽.

25) 나종석(2009), 「탈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탈근대적 민족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62~63; 이용일(2007), 「탈민족주의와 서구중심주의」, 『역사와 경계』, 62호, 부산경남사학회, p.16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자 상상의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학계 역시 이들의 영향을 받은 근대론적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연구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권혁범[26]은 배타적 민족주의, 근대의 발명품으로서의 민족을 비판하면서, 민족동질성론 담론이 지니는 위험과 함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임지현[27] 역시 역사를 날조하거나 허구적 신화를 창조하면서까지 민족적 정체성의 객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보수적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이들은 동질성 담론의 한계, 독재정당화의 수단, 획일주의와 배타주의 등의 문제를 지닌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에 대한 일면적 이해라는 문제제기 역시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민족주의가 독재정당화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 불과하다. Jenkins[28]는 민족주의는 자기완결적 논리구조를 갖지 못한 2차적 이데올로기라고 하였다. 이념적 가변성을 지닌 2차적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는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29]. 이데올로기 자체가 허위의식으로서의 부정적 기능을 지닌 것인 동시에, 신념체계, 세계관과 같은 중립적 기능, 더 나아가 사회통합, 동원과 사기진작 등의 긍정적 기능 또한 지니는 열려 있는 개념인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민족주의 이해는 강대국의 시각 혹은 서구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민

26) 권혁범(2009),「민주적 애국주의에 대해서」,『시민과세계』, 16호; 권혁범(2000),「탈분단과 민족주의」,『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삼인, pp.185～189.
27) 임지현(1999),『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p.49.
28) Jenkins, B.(1990), Nationalism in France : Class and Nation Since 1789, Routledge, p. 9.
29) 이범웅, 앞의 글, p.31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족주의 연구는 강대국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그치는 연구들이 많다는 것이다[30]. 기존 연구들은 민족주의의 거침과 과잉을 염려하며, 심지어 민족주의를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 연구는 대부분 강대국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세계화 담론을 예로 들자면, 세계화를 옹호하고 민족주의를 비방하는 것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을 주장하는 세계화론자들의 시각, 즉 강대국의 시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구의 시각에 따라 민족주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근대론, 탈근대론적 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서구 근대화를 우위에 두고 사고한다는 문제 또한 있다. 이는 계몽적인 서구, 북미의 민족주의와 종족적이고 권위적인 중부, 동유럽의 민족주의의 구분 혹은 긍정적인 서구 북미의 민족주의와 인종적이고 야만적인 동유럽(혹은 기타지역)의 민족주의라는 대별적인 구분은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민족국가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민족주의가 있으며[31] 역사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이분도식 혹은 삼분도식(국가민족, 문화민족, 저항민족)으로의 구분은 매우 위험한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법, 혹은 민족담론은 약소국 민족주의, 저항 민족주의, 제3 세계의 민족주의의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최근의 탈 민족주의 담론의 문제점이다[32]. 탈 민족주의 담론

30) 김영명(2002),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오름, pp.7~8.
31)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7.
32) 나종석(2009), 「탈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탈 근대적 민족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71~8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은 민족주의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문제, 배타적 폭력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면서 본격화한 한국 민족주의 이론의 역사와 정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탈민족주의론자들이 내세우는 민족주의의 억압성, 배타성은 다른 이념이나 담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에, 그들 스스로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문제점들은 통일 민족주의가 극복해야 할 중요 문제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통일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통일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첫째, 통일 민족주의는 민족적 시각, 한국적 시각에서 바라본 민족주의여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한 일이며, 민족적 시각, 한국적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민족주의는 세계화론처럼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인 보편성 담론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여야 한다. 유럽 민족주의가 자민족 중심주의, 배타적 폭력으로 점철된 것이라면, 한국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저항 민족주의의 흐름,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평화 민족주의, 통일 민족주의, 민주주의와 함께 하는 민족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중심의 민족주의가 동일성 담론에 기반을 둔 배제와 배타적 폭력주의로 전락하였다면, 통일 민족주의는 동양적 관계성, 한국적 和(화)의 논리, 다름의 공존의 지향하는 화쟁을 실현하는 민족주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민족주의가 독재정당화에 기여해 온 부정적 왜곡의 이데올로기였다면, 통일 민족주의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셋째, 민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취하는 근대론적 민족주의자들, 탈민족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의 동일성 패러다임, 배타성과 폭력성은 기존 민족주의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통일 민족주의는 이러한 배타성과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민족주의, 포용과 공존의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Ⅲ. 분단체제 하의 남북한 민족주의의 문제점과 통일민족주의의 기본과제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시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민족주의로 본격화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민족주의의 목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 근대적인 통일국가 수립에 있었으나 뒤이은 민족분단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는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근대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자기들만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주의라기보다는 분단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 하의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민족≠국가인 국민국가이자 결손국가[33] 즉 역사적 국가의 해체와 민족≠국가[34] 즉 분단국가가 시작된 것이다.

일제강점 시기 천황의 신민이었던 민족 구성원들은 이제 분단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남한의 반공국가주의는 국민들에게 맹목적 배타적 충

33) 김성민·박영균(2011),「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 통일패러다임에 대한 시론적 모색」,『철학연구』, 92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p.156.
34) 김성민·박영균(2010),「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시대와 철학』, 21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2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성을 요구하는 강요된 공동체였으며, 여기에서 반공국민은 좌익, 빨갱이를 반민족으로 불온시하였다[35]. 반공국가에서 반공국민만이 국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좌익(혹은 빨갱이)은 배제되거나 추방되었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적대성에 기초하여 내부통합을 생산하는 민족 없는 국가의 주인화, 민족 없는 국가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었다[36]. 이는 반공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국가민족주의였으며, 여기에서 북한은 반민족에 다름 아니었다[37].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위기에 즈음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애국주의에서 보다 더 민족적 요소를 강조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제창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낭만적 문화적 민족주의에 사회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북한 사회주의를 자부하도록 만드는 이념적 동력구실을 하고 있다[38]. 북한의 민족주의는 비록 저항 민족주의의 속성에 근접하고 있으나, 김일성민족론의 제창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 민족주의는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국가 민족주의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를 또한 안고 있다. 즉 북한의 초민족주의와 남한의 초반공주의는 사실상 국가주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사실상 분단의 논리, 체제옹호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39].

분단국가의 국민은 비록 국민의 자격을 갖췄지만 민족의 구성원은 되지 못하였기에 분단의 상처와 상흔 즉 분단 아비투스와 분단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고 있다. 분단 트라우마란 민족적 리비도의 차단으로 인해 민족=국가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좌절됨으로 인해 생

35) 김동춘(2000),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p.186.
36) 김성민·박영균(2010), 앞의 글, p.34.
37) 강정인(2012),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사회과학연구』, 20집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55~56.
38) 박호성, 앞의 책, pp.136~138.
39) 김동춘, 앞의 책, p.34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겨난 분단의 상처이다. 후기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총체적인 인간활동 에너지로 이해한다. 집단적 리비도, 민족적 리비도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 즉 통일국가에 대한 열망이자 운동 에너지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분단극복이라는 원초적인 동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을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억압코드로 변환되었다. 국민국가는 민족 없는 국민국가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 트라우마를 이용하였다. 국민국가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적대의식을 형성하고, 기억을 왜곡, 재편시켜온 것이다. 분단국가는 분단의 상처를 타자에 대한 적대성으로 전환시켰으며, 이것이 국민들 속에 자리한 분단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40].

분단 아비투스는 분단이 삶에 체현된 구조, 분단이 우리의 의식, 전의식, 무의식마저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41]. 남한과 북한의 반공민족주의, 반제민족주의는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변환한 것에 다름 아니다[42]. 상처받은 민족적 리비도는 민족에 대한 열망이 타자에 대한 우월성, 적대성으로 전환된, 민족주의의 국가주의화를 통해 분단의 신체와 의식 속에 체현된 구조 즉 분단의 아비투스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단국가 민족주의는 분단국민≠민족의 과정, 즉 사실상 반민족주의화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 상처는 분단 트라우마와 분단 아비투스로 국민들 마음속에 몸속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분단 체제 하의 민족주의의 문제점은 반공, 반제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온 이데올로기의 문제, 국민≠민족의 분열적 국가민족주의의 문제, 체제 옹호 논리로서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 민족주의가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이자 기본 과제라고 할

40) 김성민·박영균(2010), 앞의 글, pp.25~36.
41) 박영균(2010),「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시대와 철학』, 21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369.
42) 박영균, 앞의 글, p.38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그간의 남북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통일 민족주의는 탈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여야 한다. 기존의 분단 국가주의가 분단 트라우마, 분단 아비투스와 같은 분단의식을 강요해 온 이데올로기였다면, 통일 민족주의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통합과 치유의 사상이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민족주의가 국민≠민족을 추구해 온 분단 국가주의, 반공국민/반제인민을 추구해 온 부정적 통합을 추구해온 부정적 이데올로기였다면, 통일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긍정적 통합의 민족주의, 새로운 민족적 공통성을 생산해내는 생산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민족주의는 민족통합 통일의 기능을 복원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 민족주의, 통합 민족주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남북 민족주의가 체제 옹호논리에 불과했다면, 통일 민족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위로부터의 민족주의가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민주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민족주의여야 할 것이다.

Ⅳ. 통일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

1.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방향, 기본과제와 화쟁사상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방향은 한국적 시각에 기초한 민족주의, 한반도의 민족주의의 전통에 기초한 평화 민족주의여야 하며,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이어야 한다.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과제는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된 남북한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극복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해 나가는 차원에서 설정된 것으로써, 탈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민족주의, 남한과 북한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통합적 민족주의, 체제 옹호 논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생 공영하는 민주적 민족주의이다. 이를 화쟁사상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민족주의의 기본조건은 기존의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배제와 폭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자민족을 제외한 타민족에게 배타적이며 침략적인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서구 중심적 민족주의 담론은 서구 대 비서구의 구분을 또한 보여준다.

통일 민족은 서구 중심적 패러다임, 서구 중심적 사유로부터 동양적 사유, 민족적 사유방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서구 중심적 세계관, 서구 중심적 민족주의론은 서양근대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는 동일성에 바탕을 둔 우열과 배제의 논리이다. 데리다와 라깡은 서양철학의 이러한 동일성 철학의 이원론적 구분법, 이항대립의 문제에 대해서 그 폭력과 배제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동일성이 형성되는 순간 세계는 동일성의 영토로 들어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 동일성은 다른 민족 등 모든 것을 타자로 간주하고 이를 자신과 구분시키면서 배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43].

서양의 철학은 존재론임에 비해 동양의 철학은 관계론이다. 동(同)은 지배와 억압의 논리이며, 흡수와 합병의 논리라면 화의 논리는 공존과 평화의 논리이다[44]. 통일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서구 중심적 이분법적 세계관, 동일성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동양적 세계관, 민족적

43) 이도흠(2010),「마음의 깨달음과 정치참여의 화쟁 : 원효와 맑스」,『문화과학』, 64호, p.136.
44) 신영복(2004),『나의 동양고전 독법 - 강의』, 돌베개, p.4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사유방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분열과 대립,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분단 민족주의, 분단 국가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통일 민족주의의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화쟁사상은 동일성의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차이의 철학, 연기(緣起)의 철학이다. 원효의 철학은 실체론이 아니라 연기론, 이분법적 모순율이 아니라 퍼지의 사유,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의 철학[45]이라고 할 수 있다. 화쟁은 연기에 대한 깨달음[46]이자 연기적 사유방법[47]이다.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타자이던 모든 생명이 나와 같은 연관을 맺고 있는 또 다른 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연기적 사유에 의하면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나와 너의 하나 됨이 이루어진다. 화쟁은 연기의 철학, 화해의 사상이기에 이러한 기존 민족주의의 배제와 폭력, 지배와 억압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 대안적 민족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 민족주의는 분단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인으로부터 통일인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화쟁의 인간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8]. 원효는 인간의 마음 세계는 두 가지 모습 즉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으며, 진여문이 불변하는 청정본성이라면, 생멸문은 염오지심으로서 늘 생멸연기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았다. 즉 진여문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생멸문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원효는 이문일심사상(二門一心思想)을 통해 이문이 화합하고 회통할 수 있으며, 두 마음이 곧 한 마음(一心)으로 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분단인이 생멸문에 머무는 인간이라면, 진여문은 통일

45) 이도흠(2015),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자음과 모음, p.41.
46) 이도흠(2015), 앞의 책, p.96.
47) 박태원(2017), 『원효의 화쟁철학』, 세창출판사, p.43.
48) 안승대(2007), 「화쟁사상을 통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탐색」, 『한국교육』, 34권 3호, 한국교육개발원, p.3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인으로 전환하는 모습, 즉 분단인의 통일인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화해와 화합의 사상체계로서 통일 민족주의의 사상이 될 수 있다. 원효의 근본사상인 화쟁사상은 쟁론을 화해시키는 사상[49] 즉 화해와 화합을 위한 사상이다. 화쟁은 일심 화쟁사상이기도 한 바, 일심은 곧 화쟁의 근거가 된다. 일심은 모든 것의 근거이며 평등무차별하다[50]. 진여와 생멸의 밑바닥에는 일심이 있으므로 생멸문 속에서 분단으로 갈등하는 마음들은 진여문으로의 귀원일심을 언젠가는 이뤄낼 수 있다. 언젠가는 화해와 화합의 일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화쟁은 평화의 사상이며 평화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화쟁은 연기의 사유이다. 모든 존재가 연기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 인과, 상호 조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1].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생성하는 하는 상호 생성자이다. 이처럼 화쟁은 주와 객, 주체와 타자를 대립시키고 분별시키지 않는다. 양자를 융합하되 하나로 만들지는 않으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존재한다. 이 속에서 연기의 세계, 평화의 세계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분단 민족주의는 국민≠민족인 분단국가의 국민을 형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다. 이는 민족적 리비도의 흐름을 차단하고, 민족의 일원인 상대방을 부정하는 분단국민≠민족으로 만드는 과정 즉 반민족화의 과정이었다. 통일 민족주의는 이러한 반 민족주의화의 과정을 극복하여 민족의 성원이 되게 하는 민족 통합의 이념, 민족적 리비도를 다시

49) 오기성(2017),「원효 화쟁사상의 평화교육적 함의」,『평화와 종교』, 4호, p.107.
50) 최유진(2015),「원효의 화쟁과 사회통합」,『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1권 3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p.95.
51) 이도흠, 앞의 책, pp.167~17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생성하는 이념으로 기능해야 한다.

억압 왜곡된 민족적 리비도의 흐름을 민족적 활력, 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민족적 공통성을 창조하는 과정이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분단 극복은 민족적 리비도의 왜곡과 전치를 극복하여 민족 역량과 잠재력이 다시 흐르게 하는, 민족의 공통성을 생산하는 새로운 민족국가 프로젝트인 것이다[52].

동일성 패러다임에 의해 배제와 폭력, 증오가 양산되기 때문에 화쟁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은 불가능하다[53]. 화쟁사상은 불교 이론들 사이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는 이념다툼의 화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화쟁사상은 다양한 갈등상황, 다양한 이념적 갈등에 적용하여 갈등의 평화적 해결, 쟁론의 화해에 적용할 수 있다[54]. 원효의 일심이문의 회통가능성은 분단민족이 통일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분단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분단민족의 상태가 생멸문에 비유될 수 있다면, 통일 민족의 한 마음의 세계는 진여문에 비유할 수 있다.

> 기신론의 심진여문은 능가경에서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고, 심생멸문은 능가경에서 "일심이란 여래장을 말한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모든 법은 생멸하지 않고 본래 적정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심진여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일심 그 자체는 본래 깨달음이지만 무명에 따라 움직여서 생멸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이 문에서는 여래의 성품이 감춰져서 나타나지 않아 여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이문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일심이 되는가? 염정제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진과 망의 이문도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일"이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법은 실하여 허공과 같지 않

52) 김성민·박영균(2011), 앞의 글, pp.145~160.
53) 이도흠, 앞의 책, p.534.
54) 최유진(2011), 「원효의 평화사상」, 『한국불교학』, 60집, 한국불교학회, p.4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 아, 그 성품은 스스로 신통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 마음이라 이를 것인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것인바, 어떻게 불러야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일심”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55)

> 진여문은 염정이 두루 통하는 곳이다. 두루 통하는 것 외에 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염정제법을 두루 통섭할 수 있다. 생멸문은 염정이 따로 다투어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기에 염정의 법이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기에 또한 모든 법을 통섭할 수 있는 것이다. 통섭하는 것과 따로 드러낸 것이 비록 다르지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두 문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56)

일심 즉 민족의 하나된 마음은 이문 즉 분단 민족의 마음으로 나타난다. 진여와 생멸문은 통섭이 가능한 것이다. 생멸의 마음속에도 청정한 본심을 깨달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분단의 마음속에도 통일의 마음을 깨달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씨앗이 있다. 일심은 이문을 포함하기에 이것이 가능하다. 즉 민족의 하나된 마음은 모두를 품을 만큼 넉넉하기에 이것이 가능하다. 정천구[57]는 화쟁

---

55) 如經本言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如來藏 此言心眞如門者 卽釋彼經寂滅者名 爲一心也 心生滅者 是釋經中一心者名如來藏也 所以然者 所一切法無滅本來寂靜 唯是一心 如是名爲心眞如門 故言寂滅者名爲一心 又此一心體 有本覺 而隨無名動作生滅 故於此門如來之性隱而不顯 名如來藏 …二門如是 何爲一心 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二處 諸法中實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然旣無有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唯曰心 如是道理 離言絶慮 不知何以自之 强號爲一心也 (원효, 『大乘起信論疎』, 『한국불교전서』 1, pp.704～705.)

56) 欲明眞如門者染淨通相 通相之外無別染淨 故得總攝染淨諸法 生滅門者別顯染淨 染淨之法無所不核 故亦總攝一切諸法 通別雖殊 齊無所遣 故言二門不相離也. 원효, 『대승기신론소』, 한국불교전서 1』, 동국대학교출판부, p.705.

57) 정천구(2003), 「화쟁사상의 분쟁해결 적용 가능성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13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pp.9～1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에서 공통된 근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갈등하고 있는 공동체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기의 마음이다. 통일 민족의 한 마음이며, 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세계, 연기의 세계, 통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화쟁사회는 자연과 사회 모두가 공생하는 생태사회, 평화의 세계이다[58]. 이는 통일과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나 불일불이의 통일세상이자 통일사회인 것이다.

셋째, 통일 민족주의는 분단 민족, 분단 국민이 지니고 있는 분단의 상흔, 분단의 아비투스와 분단의 트라우마, 분단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념이어야 한다. 화쟁사상은 인집(人執), 법집(法執)론을 통해 이와 같은 탈 이데올로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59]. 원효는 인집과 법집이 모든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며, 이에서 벗어나 일심귀원할 것을 주장한다.

> 일체의 삿된 집착의 원인은 모두 아견이므로 삿된 집착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여의여야 한다. 아견에는 인아견과 법아견의 두 가지가 있다.[60]

인아견이란 총상의 주재자가 있다고 계탁하는 것이며, 이를 아집이라

58) 안승대(2018), 「대안적 보완적 교육이념으로서 화쟁의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32권 4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p.130.

59) 정천구(2003), 앞의 글, p.7; 안승대(2007), 「화쟁사상을 통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모색」, 『한국교육』, 34권 3호, pp.39~40; 안승대(2019), 「남남갈등 극복교육 - 화쟁사상의 적용을 통하여」, 『동아인문학』, 47집, 동아인문학회, p.181.

60) 對治邪執者 一切邪執皆依我見 若離於我 卽無邪執 是我見有二種 云何爲二 一者人我見 二者法我見 원효, 『,대승기신론소』,『한국불교전서 1』동국대학교출판부, p.77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 한다. 법아견이란 일체 법이 각기 자성이 있다고 계탁하는 것이며, 이를 법집이라 한다.[61]

인집이란 세상의 모든 총상의 주재자가 있다고 믿고 이에 계탁하는 것이며, 법집이란 일체법이 자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니, 인집이란 총상의 주재자를 따르려는 집착이며 법집이란 법(주장이나 진리)에 집착하려는 것이다. 정천구[62]는 인집이란 사람과 집단을 최고로 보고 이에 집착하여 따르는 것이며, 법집이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에 대한 집착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이고 열광적인 집착이라고 보았다. 즉 인집이란 사람과 집단에 대한 집착이기에 분단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며, 법집이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이고 열광적인 집착이니 분단이데올로기, 분단 아비투스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다.

분단 이데올로기와 분단 아비투스, 분단 트라우마는 왜곡된 분단 국가주의에 대한 집착, 왜곡된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분단 국민은 그들이 지지해 온 분단권력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북한(혹은 남한)에 대한 증오를 가지는 것이 민족에 대한 헌신인 양 착각하고 집착한다. 원효에 의하면 인집과 법집은 삿된 집착이요 망상이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권위에 집착하는 것은 분단 트라우마, 즉 분단의 상처를 전치한 왜곡된 허상에 대한 집착일 뿐이며, 결코 온전한 민족적 자긍심이 될 수 없다. 분단이데올로기, 분단 아비투스에 집착하여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사람의 마음, 민족의 마음일 수 없으며 도리어 증오의 마음, 반민족의 마음을 키울

61) 人我見者 計有總相宰主之者 名人我執 法我見者 計一體法各有體性 故名法執 원효, 『대승기신론소』, 『한국불교전서 1』 동국대학교출판부, pp.773~774.

62) 정천구(2003), 앞의 글, pp.7~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뿐이니 결코 온전한 나, 온전한 민족의 일원인 내가 될 수 없다. 분단국가는 온전한 민족국가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분단국가≠민족국가의 현실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한다. 분단이데올로기, 분단 아비투스, 분단 트라우마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통일의 마음, 민족의 마음을 깨닫고 귀원일심하여야 한다.

2. 화쟁 민족주의의 통일 통합의 원리

화쟁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로서 분단 이데올로기부터 벗어나 평화와 통합의 민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이다. 화쟁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분단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 평화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서 불일불이의 원리, 개합과 입파의 원리, 다툼속에 화합하는 주체 즉 화쟁인이라는 세 가지 실천원리를 가진다. 이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 극복을 위한 실천원리, 일심이라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무애의 실현원리, 다투며 화합하는 화쟁민족의 실현의 원리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불일불이의 원리는 기존 민족주의의 동일성의 원리, 배제와 폭력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원리이다. 개합과 입파의 원리는 모든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무애의 사유에 도달할 수 있는, 즉 일심화쟁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실천원리이다. 화쟁인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다투면서, 화쟁하면서 살아가는 화쟁민족의 실현원리, 화쟁인의 실현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볼일불이(不一不二)의 원리

불일불이의 원리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둘인 것도 아닌 상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기존의 민족주의는 동일성 원리에 의한 배제와 차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불일불이론은 동일성에 대한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논리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기에 투쟁과 모순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사실체계이다.[63] 즉 불일불이의 원리는 기존 민족주의의 동일성의 논리를 차이의 논리, 상생의 논리로 전환하는 화쟁 민족주의의 실천원리인 것이다.

> 하나가 아니지만 둘을 융합하였으므로(不一而融二) 진 아닌 현상이 일찍이 속이 된 것이 아니고, 속 아닌 이치가 일찍이 진이 된 것도 아니다. 둘을 융합하였지만 하나가 아니므로(融二而不一) 염정의 현상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64]

이처럼 화쟁은 모든 진리가 둘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기에 각각의 논리는 존중되고 혼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화쟁의 논리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동일성의 논리를 극복하는 불일불이의 논리인 것이다. 불일불이는 차이를 통하여 공존을 모색하는 것[65]이며 서로간 차별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하나를 형성하는 이론,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섭하는 것이다.[66] 화쟁의 근본원리인 불이는 이것과 저것, 하나와 여럿, 우주와 나, 자연과 나, 사회와 나, 너와 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는 통찰에 기초하여 상생의 문명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새

63) 조수동(2010), 「다문화와 한국불교의 화쟁사상」,『철학논총』, 60집 2권, 새한철학회, p.89.
64) 원효,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 출판부. p.604. 不一而融二 故非眞之事 未始爲俗 非俗之理 未始爲眞也 融二而不一 故眞俗之性 無所不立 染淨之相 莫不備焉.
65) 이도흠(2014), 「탈현대철학과 화쟁사상 가로지르기」, 『시와 세계』, 6집, p.72.
66) 조수동(2010), 앞의 글, p.8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로운 패러다임[67]인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의 하나 됨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인 것도 아닌, 차이가 공존하는 상태로의 통일을 추구한다. 또한 민족의 하나 됨을 추구하지만 다른 민족과 차별을 가지지 않는 나와 우리, 남북과 세계가 혼융되어 하나이며 둘이자 여럿인 통찰에 기초하여 평화세상, 공생의 문명을 추구해 나가는 원리인 것이다.

2) 개합(開合) 입파(立破)의 원리

원효의 논리는 화쟁의 논리이며 그것은 개합과 입파의 논리이다. 즉 화쟁은 개합과 입파를 통해 일심의 본래성인 무애를 실현한다.[68]

> 이 논서(기신론)의 뜻은 이미 이와 같아서, 펼치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을 근본으로 삼고, 합치면 이문일심의 법을 요체로 삼으니 두 문의 안에 만 가지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어지러움이 업고, 가없는 뜻이 일심과 같아서 혼융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합이 자재하고(開合自在) 입파가 무애하니(立破無礙) 펼쳐도 번거롭지 않고 합쳐도 협소하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깨뜨려도 잃음이 없다.[69]

> 그러므로 파함이 없지만 세우지 않음이 없고 세움이 없지만 세우지 않는 것이 없다. 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인 것이다.[70]

---

67) 유문무(2017),「원효 화쟁사상의 현대적 의의 - 소통, 통합 그리고 평화」,『한국학논집』, 6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51.

68) 이효걸(2002),「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검토」,『불교학연구』, 4호, 불교학연구회, pp.20~27.

69) 원효,『대승기신론소』,『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 출판부, p.698. 此論之意 旣其如是 開卽無量無邊之義 爲宗 合卽二門一心之法爲要 二門之內容萬義而不亂 無邊之義 同一心而混融 是以開合自在 立破無碍 開而不繁 合而不狹 立而無碍 破而無失.

70) 원효,『금강삼매경론』,『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 출판부, p.604. 爾乃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爲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개합자재와 입파무애는 긍정하지 않음이 없고 부정하지 않음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허용하며 또한 모든 것을 부정한다. 긍정과 부정에 거침이 없는 사유, 모든 것을 긍정하고 부정하며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는 창조의 과정으로서의 화쟁, 분단에 구애됨이 없이(無碍) 자유롭게 통일의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는 원리가 곧 화쟁 민족주의의 개합입파의 원리인 것이다. 긍정을 하지만 끝까지 긍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요, 부정을 하지만 역시 부정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자재의 의미이며 이는 곧 대긍정의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71]

이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인, 자유인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침없는 사유, 무애의 사유를 통해 무애인은 분단인을 굴레를 벗어나 통일의 논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통일인,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3)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和諍人)

다툼(諍) 속에 화합하는(和) 주체는 다름 아닌 화쟁인이며, 이는 화쟁 민족주의의 인간상이기도 하다. 일심이문으로서의 자아, 즉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화쟁의 자아, 화쟁의 민족자아인 것이다. 원효에게 일심이란 모든 중생들의 근원이며 또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이 분별하고 다투는 것은 일심의 근원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지만 일심으로 인해 화해하고 회통할 수 있다.[72]

> 기신론의 심진여문은 능가경에서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고, 심생멸문은 능가경에서 “일심이란 여래장을 말한다”고

71) 최유진(1991). 앞의 글, pp.233~240.
72) 정천구(2003), 앞의 글, p.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모든 법은 생멸하지 않고 본래 적정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심진여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일심 그 자체는 본래 깨달음이지만 무명에 따라 움직여서 생멸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이 문에서는 여래의 성품이 감춰져서 나타나지 않아 여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이문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일심이 되는가? 염정제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진과 망의 이문도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일"이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법은 실하여 허공과 같지 않아, 그 성품은 스스로 신통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 마음이라 이를 것인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것인바, 어떻게 불러야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일심"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73]

> 이 논서(기신론)의 뜻은 이미 이와 같아서, 펼치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을 근본으로 삼고, 합치면 이문일심의 법을 요체로 삼으니 두 문의 안에 만 가지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어지러움이 업고, 가없는 뜻이 일심과 같아서 혼융되어 있다.[74]

진여문, 생멸문은 일심 속에서 화해하고 회통할 수 있다. 다툼 속에 기어코 화합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심으로 인해서이며, 무명의 바람 속에서 분단자아에 머무는 것은 밝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쟁은 다툼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일심으로

---

73) 如經本言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如來藏 此言心眞如門者 卽釋彼經寂滅者名 爲一心也 心生滅者 是釋經中一心者名如來藏也 所以然者 所一切法無滅本來寂靜 唯是一心 如是名爲心眞如門 故言寂滅者名爲一心 又此一心體 有本覺 而隨無名動作生滅 故於此門如來之性隱而不顯 名如來藏 …二門如是 何爲一心 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二處 諸法中實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然旣無有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唯曰心 如是道理 離言絶慮 不知何以自之 强號爲一心也.. 원효, 『대승기신론소』, 『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출판부, pp.704~705.

74) 此論之意 旣其如是 開卽無量無邊之義 爲宗 合卽二門一心之法爲要 二門之內 容萬義而不亂 無邊之義 同一心而混融. 원효, 『大乘起信論疎』, 『한국불교전서』1, p.69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나아가게 하는 깨달음의 원리이다. 화쟁인은 바로 이렇게 다툼 속에서 기어코 화합하는 통일의 주체인 것이다.

통일은 단지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기에 갈등에 대한 감성을 요구한다. 통일주체는 분열하고 갈등하며, 참을 수 없는 것을 관용하는 주체, 파괴적 충동마저 수용하며, 갈등과 분노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 속에서 기괴한 타자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주체인 것이다.[75] 통일의 주체인 화쟁인은 동일성의 사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화쟁인은 다툼과 분열, 갈등을 수용하고 관용하며 그 속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사람이다. 화쟁인은 다툼 속에 화합하는, 포용하고 관용하며, 기어코 일심 즉 통일 민족 큰마음, 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통일민주시민인 것이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통일시대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는 강대국의 시각, 서구 중심적 시각에 따른 연구가 많았다. 세계화론이나 열린 민족주의 담론, 근대화 이론이나 탈 민족주의가 중심을 이뤘던 연구풍토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반도 민족주의는 서구의 보편성보다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통일 민족주의는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민족주의여야 할 것이다.

---

75) 이서행(2008), 「한민족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정책과학연구』, 18집 2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p.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둘째, 민족주의는 가변성을 지닌 2차 이데올로기로서 대외적 침략주의나 대내적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문제점이 있다. 이는 기존의 민족주의가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자신과 다른 민족과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화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성 패러다임을 화쟁사상의 차이와 연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이를 민족주의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남한과 북한은 민족≠국민인 국민국가이자 결손국가로서 민족주의의 국가주의화 즉 분단국가주의를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민족 구성원은 국민의 자격을 갖췄지만 민족의 구성원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분단의 체화로서의 분단 아비투스, 분단의 상처인 분단 트라우마를 간직하게 되었다.

화쟁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분단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통일 민족주의이다. 분단 민족주의가 민족≠국가인 분단국가주의의 강화와 이를 통한 민족적 리비도의 차단 등의 사실상 반 민족주의화의 과정이었다면, 통일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차단된 민족적 리비도를 부활시키고 분단인을 통일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민족주의화의 과정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화쟁 민족주의는 일심이문 사상을 통한 분단인의 통일인으로의 전환 가능성, 민족의 한 마음, 큰마음인 일심(一心)으로 다가서는 귀원일심으로서의 화쟁, 상생, 공존, 평화 세계로서의 화쟁, 연기, 평화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적 리비도의 생성과정으로서의 통일 민족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화쟁사상의 실천원리는 구체적인 통일 민족주의의 실천원리로 적용 가능하다. 우선 불일불이의 원리는 기존의 민족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존의 민족주의가 동일성의 원리, 서구 중심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민족주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였다면, 불일불이의 원리는 동일성을 차이와 연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냄으로써 동양적 세계관 위에 선, 관계성의 철학에 기초한 공존과 상생의 새로운 민족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불일불이의 원리는 하나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둘을 포기하지는 않는 차이의 철학, 관계성의 철학이다. 불일불이의 원리는 남과 북의 통일을 추구하되 그렇다고 남과 북의 각자의 체제논리와 삶의 방식을 버리지도 않는 상생과 공존의 통일을 추구한다. 또한 불일불이의 원리는 한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이익을 지켜 나가면서, 세계 각 민족의 이익과 권리도 존중하면서 공생을 모색하는 세계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개합입파의 원리는 극한 이념대립을 무애의 사유방식, 거침없는 사유방식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통일질서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이다. 개합이 자재하고 입파가 무애하니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통합하며, 세우고 파한다. 남북의 체제와 이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분단의 트라우마와 아비투스에 대해 거침없이 펼치고 논을 세우며, 자유자재로 이를 합치고 파해 나간다. 이를 통해 통일의 새로운 이념, 통일 민족 새로운 활력을 형성해 나가는 통일 민족 창조의 과정의 핵심원리가 바로 개합과 입파의 원리인 것이다.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는 통일 민족 구성원인 화쟁인의 실천원리이다. 통일사회는 마냥 평화롭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은 사회이다. 통일 민족 주체인 화쟁인은 일상 속에서 늘 갈등을 마주하고, 다툼 속에 살아야 하며, 용인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화쟁인은 화합하기만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이다. 다투되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주체이며, 화합을 하되 다양성이 용인되는 민주사회 속의 주체이다.

통일 민족주의로서의 화쟁 민족주의는 화(和)가 중심인 민족주의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아니라 쟁(諍)과 화(和)가 모두 중시되는 민족주의이다. 다툼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는, 차이를 서로 용인하고, 참을 수 없는 차이와 대립마저도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화쟁의 사회, 화쟁의 민족주의이다. 화쟁으로 가득한 세상, 그곳은 화합만 존재하는 곳도 아니요, 갈등만이 가득한 곳도 아니다. 그곳은 갈등과 화합이 공존하는 곳, 이를 통해 서로가 공생 공존하는 통일세상이며, 이것이 바로 통일 민족주의로서 화쟁 민족주의가 꿈꾸는 화쟁사회, 화쟁민족의 세상인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참 고 문 헌

강만길(2003),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강정인(2012),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사회과학연구』, 20집 2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동춘(2000),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_____(2007), 「사회로서의 민족, 사회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공간과 사회』28권, 한국공간환경학회.
김성민·박영균(2010),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시대와 철학』21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_____(2011),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 통일패러다임에 대한 시론적 모색」,『철학연구』92집, 철학연구회.
김영명(2002),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오름,
_____(2003),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문제」,『민족사상연구』11호, 경기대학교 민족사상연구소.
김현남(1991), 「원효화쟁사상의 현대적 의의」,『한국종교』16호.
나종석(2009), 「탈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탈 근대적 민족주의 비판을 중심으로」,『인문연구』5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민족통일연구원(1993),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박영균(2010),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시대와 철학』, 21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_____(2015), 「통일의 변증법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통일인문학』6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태원(2017), 『원효의 화쟁철학』, 세창출판사.
박호성(1997),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당대.
배성인(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세계화와 주체화의 변증법」,『통일문제연구』37호,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백낙청 편(1981),「근대화와 민족주의」,『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송두율(2000),『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_____(2002),『미완의 귀향과 그 후』, 후마니타스.
_____(2002),『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신영복(2004),『나의 동양고전 독법 - 강의』, 돌베개.
안승대(2007),「화쟁사상을 통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모색」,『한국교육』34권 3호, 한국교육개발원.
_____(2018),「대안적 보완적 교육이념으로서 화쟁의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교육사상연구』32권 4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_____(2019),「남남갈등 극복교육 - 화쟁사상의 적용을 통하여」,『동아인문학』47집, 동아인문학회.
오기성(2017),「원효 화쟁사상의 평화교육적 함의」,『평화와 종교』4호, 한국평화종교학회.
원효,『금강삼매경론』,『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출판부.
원효,『대승기신론소』,『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출판부.
유문무(2017),「원효 화쟁사상의 현대적 의의 - 소통, 통합 그리고 평화」,『한국학논집』6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윤인진(2007),「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한국사회』8권 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이근용(2015),「원효 화쟁사상의 현실적 적용과 의의」,『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28호, 한국소통학회.
이도흠(2010),「마음의 깨달음과 정치참여의 화쟁 : 원효와 맑스」,『문화과학』64호, 문화과학사.
_____(2014),「탈현대철학과 화쟁사상 가로지르기」,『시와 세계』6집, 시와세계.
_____(2015),『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자음과 모음.
이범웅(2012),「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고찰」,『윤리연구』84호, 한국윤리학회.
이병수(2009),「남북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체제와 민족을 중심으로」,『통일인문학』4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이서행(2008),「한민족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정책과학연구』18집 2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이용일(2007),「탈 민족주의와 서구중심주의」,『역사와 경계』62호, 부산경남사학회.
이을호(1986),「단군신화의 철학적 분석」,『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이종오(1993),「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해보며」,『창작과 비평』, 1993년 여름호.
이효걸(2002),「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검토」,『불교학연구』4호, 불교학연구회.
임지현(1999),『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정영철(2007),「남북한 대립 상징의 구조와 변화」,『북한연구학회보』11권 1호, 북한연구학회.
정지웅(2004),「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함의」,『북한연구학회보』8권 1호, 북한연구학회.
정천구(2003),「화쟁사상의 분쟁해결 적용 가능성 연구」,『21세기 정치학회보』13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조수동(2010),「다문화와 한국불교의 화쟁사상」,『철학논총』60집 2권, 새한철학회.
최유진(2011),「원효의 평화사상」,『한국불교학』60집, 한국불교학회.
_____(2015),「원효의 화쟁과 사회통합」,『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21권 3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홍석률(2007),「민족주의 논쟁과 세계체제,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대응」,『역사비평』, 2007년 8월호(172호).
Gellner, E.(1964), Thought and Change, Weidenfeld and Nicloson.
Jenkins, B.(1990), Nationalism in France : Class and Nation Since 1789, Routledge.

이 논문은 2019년 7월 24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8월 2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Abstract>

A Study on Hwa-Jaeng nationalism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era

An, Seung-d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on Hwa-Jaeng nationalism as a unification nationalism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er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First, existing studies on nationalism have been done according to the perspectives of superpower nations. However, Korean nationalism should have focused on the speciality in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the universality in the world.

Second, because it is a second ideology, the nationalism has many problems which were justifying ideology a policy of aggression or suppression.

Third, South and North Korea as divided nations have utilized the nationalism to strengthen the own nation. Hwa-Jaeng nationalism aim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divided-nation's nationalism such as.

Fourth, the principles of Hwa-Jaeng nationalism for unification are like as these : neither and nor two shows th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Researcher.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

new possibilities overcoming the existing nationalism, the method of freedom of affirmation and negation could be a principle for creating a new unification order, subjects conciliating while quarrelling is a man of Hwa-Jaeng.

Key Words : nationalism, unification nationalism, Hwa-Jaeng thoughts, divided nationalism, neither one nor two.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19/11/01 13:28(KST)